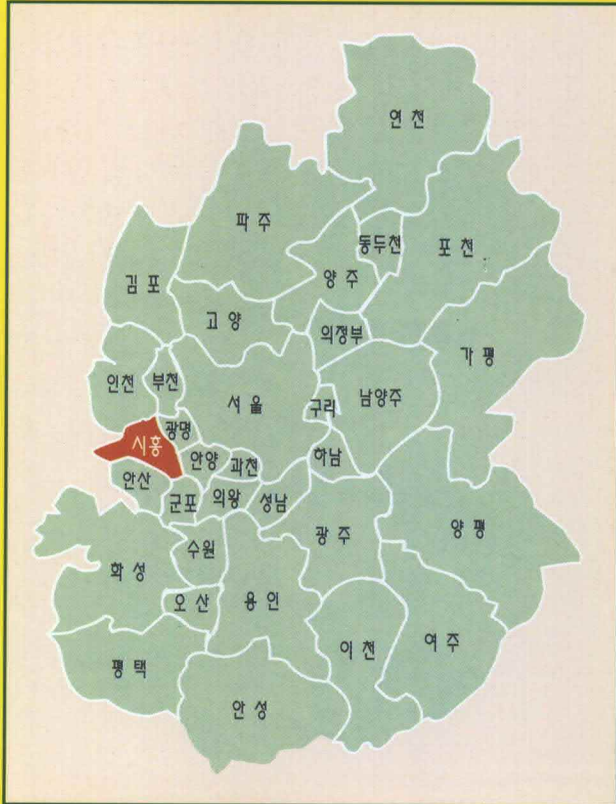


# 시흥시

군자성황제

새우개장승놀이



# 군자성황제

## 1. 전승지

시흥시 군자동

## 2. 유래 및 해설

### 1) 유래

군자성황제는 멀리 고려초기부터 거행되기

시작했다고 전해진다.

즉, 신라 56대 경순왕이 고려에 사직을 넘겨주고 경주를 떠나 충북 제원군을 거쳐 강원도 원성군 고자암에 미륵불상을 조성한 후 시흥시 군자동 구준물 마을에 이르러 안씨부인과 생활하고 아들 덕지(德摯)를 낳았다.

그 경순왕이 죽자 안씨부인이 마을 뒷산인 군자봉에 매일 올라가 치성을 드리자 어느날 꿈에 경순왕이 나타나 안씨부인을 위로하고



홀연히 사라졌다. 얼마후 내의시랑 서희(徐熙)가 송나라 사신으로 출행하게 되었는데 그때 안씨부인의 영혼이 나타나 사행길을 도와주어 그 은공으로 군자봉 정상에 경순왕의 영정과 안씨부인의 소원당을 지어주었다. 그 후부터 인근의 주민들이 해마다 음력 2월에는 성황신인 경순왕과 안씨부인 및 장모 홍씨의 영정을 모시고 인근의 마을로 내려와 제를 지내고 10월에는 군자봉 정상에 있는 소원당(또는 성황사)에서 신곡맞이 행사를 일천여년간 한해도

빠짐없이 성황제를 지내오고 있다.

## 2) 예 설

성황제는 제례의식을 시작으로 부정풀이, 산신맞이, 불사거리, 장군 신장거리, 상대감거리, 별상, 대신거리, 뒷전 등으로 이어지며 성황제가 끝나면 주민들이 한데 어울려 춤을 추며 여흥을 즐긴다.

군자성황제의 발상지인 군자봉은 봉우리가 하나라 하여 일봉산 이라 부르기도 하고, 또 산의 내령이 서쪽으로만 뻗어 있어 서령산(西嶺山)이라 칭하기도 한다. 이 산은 조선조 제6대 임금인 단종이 안산군 와리면 능내리(현 안산시 목내동 능안)에 있는 어머니(현덕왕후)의 묘소를 참배하러 가는 길에 이 산을 보고 마치 연꽃처럼 생겨 군자의 모습과 같다하여 군자산이라 했다가 조선조 말엽에는 군자봉으로 개칭되었다.

군자봉은 서해연안에 있는 산이어서 삼국 이래 한강유역과 남양만을 연결하는 교통로를 지키는 요지로, 산성(군자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산봉우리를 세자 세치각인 이야기등 수많은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이렇듯 영험한 군자봉은 예로부터 무속신앙이 크게 발달한 영산으로 조선시대에는 산 정상

에 한국식으로 지은 성황당이 있었으나 현재는 그 흔적만 남아있고, 그 옆에 수백년 수령의 느티나무 앞에서 해마다 성황제를 지내오고 있다.

## 3) 의의 및 특징

해변에서 멀지않은 군자봉은 우리나라의 역사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그 기슭에서는 취락지로 추정되는 무문토기유적이 많 발견되고 있으며 가까운 정왕동 오이도에서는 폐총과 함께 빗살무늬토기 조각도 나타나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관아가 수암봉아래에 있었음에도 군자봉 주위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았던 것 같다. 왜냐하면 고을의 안녕을 지키주는 성황신을 모신 성황당이 수암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군자봉과 이곳에서 멀지않은 안산 성두산에 하나씩, 모두 2개나 있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성황당이 있는 곳에는 또한 산성터가 함께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이곳의 성황당들은 인근 해변가의 방위와 인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전하는 말로는 군자봉에는 신라의 경순왕과 부인안씨 및 장모인 홍씨를 성화신으로 모신다고 한다. 그 사실여부는 문제로 남겨둔다고 하더라도, 그 역사가 상당히 오래된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전설에 의하면 성황신은 고려의 서희가 경순왕의 영정과 안씨부인의 소원당을 지었다는 것으로 보아 이곳의 역사는 구체적으로 고려초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성황신앙이 고려 문종때부터 시작되었다는 학설로 미루어 보았을 때, 이 역사는 어느정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곳의 성황제는 음력2월과 10월에

걸체 한해에 2번씩 무당들에 의해서 올려지는 마을굿의 하나다.

2월에는 성황님을 주위의 미올로 내려 모셔 제를 지내는 것이 특징이며, 10월에는 소원당에서 올리는 신곡맞기가 특징이라고 하겠다. 조선시대에는 관리가 지내는 유교식 제사가 먼저 올려졌으나, 지금은 무당의 굿만이 남아있는 실정이다.

이 굿은 내용에 있어서 수원을 중심으로 한 육지지역에서 행해지던 도당 굿과도 차이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앞으로 제대로 전승되어 이 지역의 문화적 배경과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한다면, 중요한 민족문화유산으로서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 구지성황제에 등장하는 성황들이

남산은 봉이요 주산은 당산이라  
 갑산은 지자로다 인간은 강이요  
 여산은 도읍이요 천간은 착하시니  
 하늘이 생기시고 지복이 착하시니  
 땅이 생기시고 인오술상하니  
 사람이 생기셨네

그때 그시절에 동방문이 열리시고  
 그때 그시절에 서방문이 열리시고  
 그때 그시절에 불방문이 열리시고  
 그때 그시절에 오구제석 천왕문이  
 열리시고

함경도라 백두산은 두만강이 둘러있고  
 평안도라 묘향산은 대동강이 둘러있고  
 황해도라 구월산은 임진강이 둘러있고  
 강원도라 금강산은 해금강이 둘러있고  
 경기도 삼각산은 한강이 둘러있고  
 충청도라 계룡산은 금강이 둘러있고  
 경상도라 태백산은 낙동강이 둘러있고  
 전라도라 지리산은 용림수가 둘러있고  
 제주도 한라산은 사면바다 둘러있네

맥이맥이 성황님네 봉봉이 성황님네  
 앞도당산에 성황님네 뒤도당산에 성황님네  
 터를 잡던 성황님네야  
 오동나무 상상봉에 봉황이 높이 떠서  
 천연지두 만년가옥 주춧돌에 땀이나서  
 팔목기둥에 쯤이나고 아버지는 투구쓰고  
 어머니는 사모쓰고 아들에게 각띠띠고  
 딸에게는 쪽도리 씌우고  
 봉봉이도 자중하고 골골이도 자중하소  
 만인간이 소원성취를 마련하고  
 부귀영화를 마련하면 오는 길에 복을 주고  
 가는길에 명을 주소

▼경순왕의 영정



# 새우개장승놀이

## 1. 전승지

시흥시 포동 새우개 마을

## 2. 유래 및 해설

### 1) 해설

포동 새우개(新峴)마을은 경기도 서해안

근처의 한촌락으로 서울에서 서남방향으로 약 26km떨어져 있다. 원래 농민과 어민이 공존하던 해안 촌락이었으나 1933년에 소래 염전이 들어선 후 해안이 점점 후퇴하게 되었다. 이것은 어업에 종사하거나 또는 그와 관련하여 생계를 유지해 오던 주민들의 생활 방식에 변화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그 변화는 급격히 진행되지는 않았으며 주민들 중에서 어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은 일



제강점 말기까지 어업활동을 계속해 왔다.

그후 8.15광복을 거쳐 3.8선으로 어로 구역이 축소되고 낙후된 어로장비를 가지고 타 지방인들의 동력선과 경쟁을 할 수 없게되자 한 선주가 중심이 되어 주민 몇사람이 마을 주민과 친척들의 돈을 빌어 기장 54자인 동력선 “포리호”를 장만하였다.

그러나 마을배라고 할 수 있는 포리호가 납북되는 사건이 발생되어 이지역의 어업은 몰락상태에 이르게되었다. 게다가 염전의 확장으로 해안이 멀어져 어업활동이 불편해 졌음으로 6.25사변을 겪은 후로는 어민의 대부분이 생업을 농사나 염부로 전환하였고 그 밖의 소수의 어민은 “노럼”이란 지역으로 이주하였다. 그 결과 이 마을에는 배가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되었고 어업과 관련하여 당제와 함께 거행되던 장승놀이와 도당굿도 이와 때를 같이 하여 사라지게 되었다.

장승놀이가 행해지는 곳을 “당집”이라고 부른다. 이 당집은 원래 마을 뒷산인 학미산에 있었다가 1650년경에 주민들이 많이 사는 서편마을로 옮겼다. 그후 어업이 번성함에 따라 어민들이 해안에 가까운 동편마을에 거주함으로써 동편마을이 확장되자 1910년에 이르러 두 마을의 중간지점인 현재의 위치에 있게 된 것이다.

장승놀이는 처음에는 산신제의 성격을 띠었다고 한다. 구전에 따르면 제의 대상신인 도당할머니, 도당할아버지는 호랑이를 나타내는 모습의 산신이던 것이 어업이 활발해지면서 주로 어부들이 섬기는 신들의 대상신으로 첨가되어 24당을 이루게 되었고, 역시 어부들이 배에다 모시는 “소당 아가씨”라는 신을 합하여 25신이 이 당에 모셔진 것이다.

부인들은 소당아가씨를 삼신과 같은 것으로 여기는데, 이 소당아가씨도 어민들의 풍

속과 관련된 신으로서 중선크기의 배 밑 방에 바늘, 실, 노랑천, 다홍천 등을 놓아 소당의 신체로서 모신다. 당집에 차려놓은 신의 종료와 신체의 위치는 배에서 모시고 입는 형태와 거의 일치한다. 장승놀이가 주로 어민들에 의해 주도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치가 일어난 것이다.

당집옆에 하나의 터주막이 세워져 있는데 그 크기는 가정의 터주막보다 약간 크다. 하나의 터주에 두 내외가 함께 있다고 생각된 것이다. 장승놀이에 앞서 고사드리기 위해 그 앞에 잔을 놓을 때도 두 잔을 놓는다. 당집 옆에 있는 수백년 수령의 은행나무와 느티나무도 신성시 되어 고사의 대상이 된다.

장승놀이는 주민 모두가 참여한 것은 아니다. 양반을 자처하는 일부 인사들은 상놈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하여 일체 참여하지 않았다가 일제 강점 후 후터 이들 일부가 어업에 종사하면서 장승놀이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말하자면 이곳에서의 장승놀이는 양반을 견제하고 그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다.

새우개 마을에서는 계절을 구분하여 정월 초에는 어민을 중심으로 장승놀이와 도당굿 및 당제를 행하고, 7월초에는 농민을 중심으로 지신을 위하는 우물고사를 지낸다.

장승놀이는 먼저 놀이를 행하기 15일 내지 20일 전에 마을주민중 50~70세 전후의 노인들이 모인 중노방에서 장승놀이를 주재할 당주 1명을 선출한다. 선출된 당주는 수를 보아서 당주의 생기복덕을 맞추어 택일한다. 그리고 당주를 도와줄 약간명을 더 뽑는다.

당주, 제주등이 선정되면 당주와 소임을 포함하여 이들 제관들은 당에 올라가 당치장을 하고, 동편과 서편에 하나씩 있는 큰 우물을 청소한다.

한편으로는 장승놀이를 행하기 위한 별도의 회의가 개최된다. 이 회의에서는 장승을 제작하는 목수 2명(동편, 서편에서 각1명과) 목수를 도와줄 보조원 약간명을 선출한다. 장승에 사용되는 나무는 반드시 밤나무라야 한다. 밤나무가 썩지않고 오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장승을 동편 마을에서는 “동방축귀대장군”, 서편마을에서는 “북방축귀대장군”으로 호칭된다. 이들 장승은 모두 선달 그믐날까지 완료되어야 하는데 많을때는 한마을에서 3~5개 까지 제작하기도 한다.

정월 초 사흘이 장승놀이를 행하는 날이라면 실질적인 장승놀이 일정은 그전날(초이틀)부터 시작된다. 이튿날 밤이되면 당주와 그 부인은 장승놀이에 쓸 일체의 도구와 음식을 들고 당에 오른다. 당주 부부는 당집 안에서 조라술을 담아 새벽2시경에 치성을 드리는데 이를 “조라치성”이라고 한다.

제관들은 전날 목욕재계하고 아침에 깨끗한 마음으로 당에 올라 뿔감마련등 장승놀이 준비를 한다. 뿔감이 마련되면 미리 예약해 놓은 소를 구입하러 간다. 소를 잡으면 그 피를 받아 선지를 만들어 피고사를 지낸다. 피고사는 도당신에게 인간들이 짐승을 잡았다고 알리는 일종의 초례(初禮)이다

장승놀이는 불래 당주의 지시에 따라진행되었다. 장승놀이가 시작되면 마을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 화랭이 20여명과 단골무당 2~3명이 마을을 한바퀴 돈다.(후에 농악대로 대체) 단골무당들이 당마다에 모인 주민들 앞에서 북어 한마리와 백지 한장을 상에 놓고 부정을 치며 굿할 준비를 하면 “뿔뿔이”라고 불리우는 화랭이패(또는 농악대)를 두패로 나뉘어 한 패는 동편마을에서, 그리고 다른 한패는 서편마을에서 장승에 관한 제사를 지내고 나서 덕담을 하고 농악대가

가가호호를 돈다.

각 가정에서는 부인들이 소반에 쌀과 실을 담은 꽃반을 차려놓고 이들로부터 축원을 받고 술을 대접한다. 이때 화랭이패(또는 농악대)들이 양편(동서)에서 출발하여 각가정을 돌다보면 중간지점인 마당에서 서로 마주치게된다. 그러면 자기들끼리 서로 어울려 한바탕 놀아댄다.

## 2) 연 표

- 고려말 : 새우개마을에 사람이 처음으로 살기 시작하면서 마을의 안정과 풍요 및 풍어를 기원하기 위하여 장승놀이를 행하다.
- 조선시대 : 새우개당집 아래에 인천부 신현면사무소가 개소된 후 면 주축로 동제가 실시되다.
- 일제강점기 : 장승놀이를 일제가 미신타파라는 이유로 놀이를 못하게 하자 주민들이 왜경의 감시를 피해 야밤에 행하다.
- 1933 : 마을앞 소래염전이 설치되다.
- 1937 : 수원~ 인천간 수인선이 부설되자 장승놀이를 주관하는 선주들이 어로에 방해가 된다고 하여 각계에 진정하다.
- 1949 : “포리호” 사건으로 선주와 돈을 빌려준 일부 주민들이 파산되면서 장승놀이가 일시 중단되다.
- 967 : 새우개포구가 간만의 차가 심하고 타지역보다 3~4일간 어로활동이 늦어져 어업이 중단되다.
- 1976 : 한미재단의 사업마을로 지정되어 주민들의 소득이 증가되자 장승놀이를 더욱 풍성하게 지내다.
- 1977 : 문화재관리국의 위촉으로 한국문화인류학회에 의해 새우개마을에 대한 종합적인 민속종합 학술조사가 실시되다.

- 1980 : 정승모씨가 '의례에서 나타나는 의식의 상징적 표현과정에 관한 연구'로서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취득하다.
- 1989 :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새우개마을에 대한 무속조사를 실시하다.(교수, 최래옥, 윤석산)
- 1990 : "새우개장승놀이 민속보존회"(회장 안병윤)가 창단되다.(7.24)
- 1991 : MBC-TV의 내고향 좋을씨고 "시흥시"편에 방영되다.(3.14)

### 3) 유 래

새우개장승놀이가 처음으로 시작되기는 멀리 고려말엽부터라고 하나 확실한 문헌이 없어 자세히는 알 수가 없으나 마을 중앙에 있는 은행나무와 느티나무가 이 마을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다. 이 나무는 마을앞에 펼쳐진 만의 입구에 위치한 정왕동 오이도에서 몰려오는 액운을 막기 위해서 마을 언덕에 세운 것이라고 전해진다.

두나무사이에 있는 당집은 이 마을에서 장승놀이를 거행하기에 앞서 제를 지내는 곳이다. 주민들은 이 당집을 성스러운 곳으로 믿고 있어 당집 주위의 나무는 함부로 자르지도 못하며 집에 갔다 들 수도 없고 사용할 수도 없다. 신성한 장소로서의 당집의 성격은 부녀자들도 마음대로 올라오지도 지나치지도 못한다.

이 놀이는 해마다 정월 초에 길일을 택해 지내고, 7월초에는 우물고사를 지낸다.

본래는 당제라 하여 도당굿과 함께 장승놀이를 거행하였다. 새우개마을은 당집을 중심으로 동쪽에 위치한 마을이 "동편마을"이고, 서쪽에 위치한 마을이 "서편마을"이다.

이들 두 마을에는 각 마을마다 장승을 세우는데 동편을 어귀에는 "동방축귀대장군"이라는 장승을, 서편마을에는 학미산 북쪽 노송

옆에는 "북방축귀대장군"이라는 장승을 각각 세운다. 장승은 마을을 지키주는 수호신으로, 마을의 안정과 풍년 및 풍어를 맡아 줄 뿐 아니라 질병을 전파하는 나쁜 귀신을 몰아내 주기 때문에 온 마을을 주민들이 장승을 세우며 두마을이 함께 춤을 추며 즐기는 일을 통하여 장승에게 감사를 표시하며 주민간의 우의를 다진다.

이 장승놀이는 공동체의식과 일체감을 형성하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이를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해주는 축제놀이이다.

## 3. 줄거리

새우개마을에서는 도당굿은 화랭이패 무당들의 사제로 이루어진다. 그것은 화랭이패 무속의 기반이기도 한데, 보통 화랭이패 2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 화랭이패들이 벌이는 굿의 제차(祭次)는 다음과 같다.

### 1) 부 정(不淨)

여자무당이 홍천익을입고 서서축원을 하고 잣물을 뿌리고 소지를 사르고 정화한다.

### 2) 시루돋음

여자무당이 치마저고리 차림으로 시루를 잡고 신을 내려 받아서 마을의 평안, 안부를 묻는다. 이때 화랭이패들은 피리, 젓대, 해금 등으로 잹이를 한다.

### 3) 뜯뜯이

화랭이패들이 동서 양편으로 3현6각을 갖추고 만신의 덕담을 곁들이며 우물과 장승께 제사 지



낸 후 가가호호를 돌며, 한 바탕 놀아댄다.

#### 4) 산(山)바라기

만신이 흥천익을 걸치고 산신을 모시며 마을의 대동굿을 잘 받으라고 한다.

축원후의 걱정말라는 공수가 나오고 화랭이패들의 반주는 계속된다.

#### 5) 공구리

굿당의 노인들이 “무권”을 선다. 이때 마을 노인들이 나와서 춤추고 놀며 화랭이패들은 계속 악기만 쳐 준다.

#### 6) 제석(帝釋)굿

장삼 고깔차림으로 화랭이가 자손 번창하고 농사 잘 되라는 축원을 한다.

#### 7) 군웅(軍雄)굿

남전복을 입은 화랭이가 덕담을하고 군웅마누라가 노정기를 엮으며 당나귀 타고 이땅에 오는 과정이 가창된다. 이때 만신은 안나온다.

#### 8) 손 굿

화랭이가 남전복 차림으로 마을의 평안과 대주, 기주를 자손들과 선주들을 축원해 준다.

#### 9) 양푼띄기

무당이 양푼을 입에다 물고 있으면 주민은 그속에 돈을 넣고 무당의 입에서 양푼을 떼어본다. 양푼이 떨어지면 재수가 없는 것이라고 그에게 굿을 권한다.

#### 10) 뒷 전

화랭이가 남전복을 입고 굿칭 끝에 굿 시작

전 부터 사람보다도 더 크게 만들어서 한상 차려 받쳤던 짚인형 허수아비를 붙잡고 씨름도 하고 오랜 수작을 하면서 주민들로 부터 돈이 나올 때 까지 재주를 부린다.

#### 11) 왕당(王堂)대 올리기

화랭이패들의 덩더쿱가락에 흥천익을 입은 무당이 춤을 추고 덕담을 해서 왕당대가 흔들리면 다같이 담으로 올라가서 실컷 춤을 추고 논 후 왕당대를 당내에 모셔 둔다.

(문헌, 장주근<포동새우개의 도당굿>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1978)

### 4. 구 성

배역	인원	성명
장승기	1	안병권
동방대장군기	1	윤병철
북방대장군기	1	허승영
영기	4	이주호, 배대영, 윤덕규, 박창진
제관	4	조용준, 이민삼, 윤태범, 이강은
장승	24	김정수, 안형기, 한석근, 김상일 허재운, 안병인, 조한주, 공호섭 오승권, 함은창, 서형석, 정문수 정일서, 최종원, 전정길, 김명진 권혁진, 김송환, 김연환, 유영철 조정행, 유병규, 노상원, 권기훈
오방기	32	서훈기, 염태준, 유종철, 차경철 안일호, 서정현, 이재부, 권중배 김기철, 정승우, 전부근, 서승진 주인근, 박종태, 김영옥, 라문기 권순화, 김은영, 조현애, 김윤희 김랑희, 이은옥, 차은정, 김희경 안현정, 박태순, 김아연, 안미경 최지영, 최은경, 박유임, 박지수

배역	인원	성명				
농악	23	차동섭, 안장국, 채상용, 김백현 김병산, 한석봉, 김연상, 구영기 김노복, 황한복, 서병익, 박용국 황우식, 조명준, 조원봉, 김원민 문종성, 안계성, 황복산, 조정호 강대원, 김동술, 노규진				
		상고	2	권석중, 이견유		
		소고	12	박종석, 유인순, 김기안, 김석봉 최미숙, 원현정, 허금녀, 이혜정 이순애, 임현주, 김화란, 소지선		
				양반	8	김용선, 박영연, 이은철, 박홍상 김진철, 고선진, 최연규, 김명기
						농민

## 5. 전문가가 본 새우개장승놀이

### 신과 사람과 공간이 만든 공동작품

장철수(한국정신문화연구원교수)

새우개의 일상생활은 어업에서 농업으로 바뀌었지만 정월의 “도당고사”는 여전히 어업생활의 모습을, 7월의 “우물고사”는 농업생활의 생활관을 보여주고 있다. 그와 함께 장승놀이를 통해서 변함없는 그들의 삶의 공간을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 오면서 겪은 체험들을 묶어 형상화 시킨 것이 “고사” 때마다 노는 놀이문화인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일상생활의 갈등을 해소하고 다시 한번 같은 마을사람들임을 다짐하고 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한계를 “도당할아버지”께 비손하는 것이 “도당고사”인 것이다. 이렇게 해서 새우개 사람들이 생활을 신과 사람과 공간이 만든 공동작품

이라는 생활관을 나타내 주고 있다.

### 풍요와 어민의 안정을 기원하는 놀이

#### 이보형(문화부 문화재 전문위원)

새우개장승놀이가 전승되는 포동 새우개마을은 전형적인 어촌마을로 예로부터 풍어와 어민의 안전을 기원하는 도당굿, 장승놀이등 우수한 민속이 전승되어 문화재관리국에서 경기도 민속표본마을로 조사된 적이 있는 유서깊은 마을이다. 새우개장승놀이는 정월 초에 당제와 더불어 벌어지던 것으로 먼저 장승을 만들 밤나무 재목을 베어 운반하는데 그 가락이 동살풀이 장단으로 씩씩하고 장중한 느낌을 준다. 재목을 깎아 장승을 만들어 놓으면 마을 사람들이 장승을 메고 풍물을 치며 이리저리 돌며 장승놀이를 벌인다. 장승을 세울 때에는 마을 사람들이 큰소리로 메기고 받는다. 장승이 세워지면 마을 사람들은 열두발 상모 등 갖가지 농악놀이를 벌이며 즐긴다.

### 주민들을 한데 묶어주는 대동축제

정승모(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사)

새우개마을의 장승놀이는 양편의 마을 입구에 장승을 세우면서 행하는 행사로서 생업이 다르고 동서로 갈라져 사는 주민들을 한데 묶어주는 대동축제이다. 장승놀이는 도당굿 행사의 일환으로 행해지지만 도당굿이 무당들이 주관하는 행사인 반면에 장승놀이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이루어지는 특징을 갖는다. 새우개마을을 포함하는 부근 지역들은 생태적인 변화를 포함하는 급격한 환경 변화에 처해있고 축제인 장승놀이를 이러한 기회를 통해 그 본래의 모습을 재현해 보고 주민들이 이를 확인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光明都堂

農者天下之大本

萬安踏橋놀이  
安養市民俗保存會

農者天下之大本

고천산신재

國泰民安  
農者

평택시

과천시

광명시

안양시